

# 19세기 역관 이상적과 김석준의 서적 간행활동

Publication of Books by  
Interpreters Lee Sang Juk and Kim Seok Joon in 19<sup>th</sup> Century

이 윤 나 (Lee, Yun-Na)\*

##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이상적과 김석준이 간행한 |
| 2. 이상적과 김석준의 교유 관계 | 서적의 특징과 간행 배경    |
| 3. 이상적의 서적 간행 활동   | <참고문헌>           |
| 4. 김석준의 서적 간행 활동   |                  |

## <초 록>

19세기의 조선의 역관이었던 이상적(1804-1865)과 김석준(1831-1915)은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며 서적 간행 활동에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이상적은 자신의 문집인 『은송당집』과 자신의 아버지인 이정직(1781-1816)의 문집인 『천뢰시고』, 이정주(1778-1853)의 『몽관시고』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김석준은 이언진의 문집인 『송목관집』과 스승 이상적의 문집인 『우선정화록』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또한 김석준은 자신의 시집인 『홍약루회인시록』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은송당집』, 『천뢰시고』, 『송목관집』은 청나라에서 간행된 책이다.

이들이 청나라에서 문집을 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가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직접 청나라에 있을 때 문집 간행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조선에 머물면서도 청나라 문인들과 서신으로 왕래하며 책을 간행할 수 있었다. 이들이 청나라에서 문집을 간행하고자 한 이유도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 때문이었다. 조선이나 청나라 모두 교유할 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청나라는 일반적인 선물 외에 서로의 문집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저작자가 죽은 후에 문집을 간행하였기 때문에 교유할 때 서로의 문집을 주고받지는 않았다. 청나라 문인들과 교유하기를 원했던 문인들은 문집을 원고로 정리하기도 하였고, 직접 간행하여 교유할 때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상적과 김석준의 서적 간행 활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要語: 이상적, 김석준, 19세기, 역관, 청나라, 교유(交遊), 서적 간행, 『은송당집』, 『홍약루회인시록』, 『송목관집』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박사과정(undel@hanmail.net)

접수일: 2016년 6월 7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Lee Sang Juk (1804-1865) and Kim Seok Joon (1831-1915) who were interpreters of Joseon Dynasty in 19<sup>th</sup> Century took a part in publication of books between Joseon and Qing Dynasty. Lee Sang Juk was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Eungsongdang-jip*, which is a collection of his own works, *Cheounroisigo* collection of works of Lee Jung jik (1781-1816) who is a his father, and *Mongwansigo* by Lee Jung ju. Kim Seok Joon published *Songmokgwan-jip*, a collection of works of Lee Un Jin and *Woosunjunghwa-rok*, collection of Lee Sang Juk who was a teacher of him. Kim Seok Joon was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Hongyakruhuein-rok*, which is a collection of his own works. Among these collections, *Eungsongdang-Jip*, *Cheounroisigo*, and *Songmokgwan-Jip* were published in Qing Dynasty.

The reason for they were able to publish collections of works in Qing Dynasty was because of that basically, there was an social interaction with literacy men in Qing Dynasty. When they stayed in Qing Dynasty, they were actually involved in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however, they were able to publish books in Joseon as they exchanged letters with literacy men in Qing Dynasty. The reason of publishing the collections of works in Qing Dynasty was because of the social interaction with literacy men in Qing Dynasty. When they were interacting, they exchanged gifts each other and they generally used to exchange their collections of works as well. In Joseon, a collection of works can be published after the writer die, therefore, writers in Joseon generally did not exchange their collections of works with others. Writers in Joseon who wanted to interact with literacy men in Qing Dynasty used to organize their collections of works into manuscripts and also published the collections to exchange with them. Therefore, the publication work of books by Lee Sang Juk and Kim Seok Jun can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Key words: Lee Sang Juk, Kim Seok Joon, 19<sup>th</sup> Century, Interpreter,  
Qing Dynasty, social interaction, Publication of Books,  
*Eungsongdang-jip*, *Hongyakruhuein-rok*, *Songmokgwan-jip*

## 1. 서론

19세기의 조선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출판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양반들의 문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했으며, 양반 계층에 국한되던 서적 간행 활동은 점점 아래로 확산되어 스스로를 여향인(閭巷人)이라고 칭하던 중인 계층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집이나 시집을 간행하였다.<sup>1)</sup>

이러한 중인 계층의 서적 간행 활동은 시사(詩社)의 활발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시선집인 『풍요속선(風謠續選)』과 『풍요삼선(風謠三選)』을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하였으며 『호산외사(壺山外史)』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 『희조일사(熙朝軼事)』와 같은 여향인들의 전기집도 편찬하였다. 전기집 중에서는 『희조일사』만이 1866년(고종 3) 전사자(全史字)로 간행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서 이들보다 앞선 세대인 장혼(張混, 1759-1828)과 같이 많은 저작물을 편찬하고, 서적의 간행에 참여한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2)</sup>

그 중에서도 역관들은 조선과 다른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창작 활동과 간행 활동에 참여하였다. 조선 후기 역관 사대가<sup>3)</sup>라고 일컬어지는 홍세태(洪世泰, 1653-1725), 이언진(李彦璘, 1740-1766), 정지윤(鄭芝潤, 1808-1858),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의 문집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홍세태는 여향인들의 시를 모아 1712년(숙종 38)에 『해동유주(海東遺珠)』를 직접 편찬하고 한구자로 간행하였으며, 홍세태의 글들은 그의 사후인 1731년(영조 7)에 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되었다.

이언진은 비록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으나 시문과 서화에 능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초고를 불살라버리기도 하였으나 1860년(철종 11)에 가

1) 이보다 이른 시기의 여향인들의 시선집으로 1737년(영조 12)에 간행된 『소대풍요(昭代風謠)』가 있다.

2) 장혼의 서적 간행에 대한 연구로 윤병태, “平民 張混의 編纂書와 刊行書,”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12)가 있다.

3) 조선 후기 역관 사대가에 대한 언급의 연원은 찾지 못하였으나 정후수, “譯官의 문학활동 - 조선조 후기를 중심으로 -,” 『한성어문학』 3권(1984)에서 조선 후기 역관 사대가로 홍세태, 이언진, 정지윤, 이상적을 언급한 바 있다.

죽과 문인들이 모은 글들을 엮어 조선에서는 목활자본으로, 청나라에서는 목판본으로 각각 간행되었다.<sup>4)</sup>

정지윤의 문집인 『하원시초(夏園詩鈔)』는 1854년(철종 5)에 최성환(崔瑔煥, 1813-1891)에 의하여 전사자로 간행되었다. 이상적은 자신의 문집인 『은송당집(恩誦堂集)』을 직접 청나라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는 이상적의 제자인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을 전사자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19세기의 역관들 가운데 가장 뚜렷한 자취를 남긴 이는 바로 이상적이다. 이상적은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역관으로 김정희의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구하기 어려운 책을 구하여 전해주거나 청나라 문인들의 서찰을 전해주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런 그에게 김정희가 『세한도(歲寒圖)』를 남긴 일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또한 이상적의 제자들인 김석준, 이용숙(李容肅, 1818-?), 강해수(姜海壽, 1824-?), 김병선(金秉善, 1830-1891), 변원규(卞元圭, 1837-1896), 최성학(崔性學, 1842-?)은 시선집인 『해객시초(海客詩鈔)』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상적과 그의 제자 김석준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청나라에서도 서적 간행 활동에 참여했다. 이상적은 자신의 문집인 『은송당집』과 자신의 아버지 이정직(李廷稷, 1781-1816)의 문집 『천뢰시고(天籟詩稿)』를 간행하였으며, 김석준은 이언진의 문집인 『송목관집(松穆館集)』과 스승 이상적의 문집인 『우선정화록』을 간행하였다. 또한 김석준은 자신의 시집인 『홍약루회인시록(紅藥樓懷人詩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이상적과 김석준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한문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였다. 주로 이들의 문학과 작품을 통해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정후수는 이상적이 청나라 학자들로부터 받은 간찰을 엮은 『해린척소(海隣尺素)』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2004년에는 『해린척소』의 필사본에 대

4) 이언진의 문집과 유고에 대한 연구는 강순애, “우상 이언진의 비점본 『해람편』 연구,”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제7권 제1호(2007. 6).

하여 연구하였으며,<sup>5)</sup> 2009년에는 발신자 61인에 대하여 탐색하였다.<sup>6)</sup> 2006년과 2007년에는 이상적의 문집인 『은송당집』의 간행 과정 대하여 『해린척소』를 토대로 살펴보기도 하였다.<sup>7)</sup> 이춘희는 이상적의 교유관계에 대하여 많은 연구결과물을 남겼다.<sup>8)</sup>

박종훈은 회인시에 대한 연구를 남겼는데 2011년에는 이상적의 회인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sup>9)</sup> 2012년에는 김석준의 회인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sup>10)</sup> 2013년에 김동건도 김석준의 회인시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sup>11)</sup>

김석준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2009년 서한석의 연구가 있다.<sup>12)</sup>

역관의 신분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다양한 창작 활동과 서적 간행 활동을 했던 이들의 행보는 매우 독특한 행보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서적 간행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들의

5) 정후수, “『海隣尺素』 13種 轉寫本 對照,” 『동양고전연구』 제20집(2004. 6), 81-114.

6) 정후수, “『해린척소(海隣尺素)』 발신자 61인의 이력(履歷),” 『한성어문학』 28권(2009).

7) 정후수, “『恩誦堂集』 출판 경위-『海隣尺素』 記事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25집(2006), 293-312.

정후수, “北京 刊 『恩誦堂續集』 출판 경위: 『海隣尺素』 記事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28권(2007. 6), 283-315.

8) 이춘희, “藕船 李尙迪과 晩淸 文人의 文學交流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이춘희, “19세기 燕行文人의 文學交流 양상 및 의미 - 藕船 李尙迪을 中心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2005. 8), 136-163.

이춘희, “19세기 朝鮮文人과 淸 常州派 후계문인의 交游: 藕船 李尙迪을 中心으로,” 『한국문화』 제45집(2009), 51-74.

이춘희, “淸 王鴻이 李尙迪에게 보낸 尺牘으로 본 선비적 交游,” 『한국학논집』 제50집(2013. 3), 7-35.

이춘희, “조선 중,후기 漢文學과 明,淸代문학의 대가들: 道咸연간의 대가 祁寯藻와 조선 문인 李尙迪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7권(2015).

9) 박종훈,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교유 양상: 藕船 李尙迪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2집(2011. 2), 279-304.

10) 박종훈, “19세기 조선 중인들의 국내외적 활동 양상: 小堂 金奭準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방학』 제25집(2012. 11), 239-268.

11) 김동건, “조선 후기 懷人詩의 인물 형상화 방식: 金奭準의 회인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1호 통권130호(2013), 7-33.

12) 서한석, “金奭準과 『孝里齋逸集』에 대하여,” 『한문학보』 제21집(2009. 12), 473-497.

활발한 서적 간행 활동의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조선 문인 및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류를 살펴보고, 이들이 간행한 서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 2. 이상적과 김석준의 교류 관계

### 2.1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

조선시대의 서적 간행은 서로의 교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집은 저자와 서로 혈연관계이거나 친우(親友), 혹은 사제(師弟) 관계인 경우가 많았다.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교정과 편집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서발문을 써 주어 책의 간행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이상적의 자(字)는 혜길(惠吉)이며, 호(號)는 우선(藕船)이다. 이상적의 우봉이씨(牛峯李氏) 집안은 9대에 걸쳐 30여 명의 역과(譯科)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직계만 살펴보아도 증조부인 이희인(李禧仁, 1713-1763)과 조부인 이방화(李邦華, 1747-1800)는 교회역관(敎誨譯官)까지 지냈으며, 생부(生父)인 이정직과 양부(養父)인 이명유(李命裕), 종숙(從叔) 이정주(李廷柱, 1778-1853) 역시 역관이였다.<sup>13)</sup> 이상적은 이정주에게서 시를 배웠는데,<sup>14)</sup> 이정주는 여항시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과 함께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조수삼은 또 이상적의 아버지 문집인 『천뢰시고』에 서문을 써주기도 하였는데 문집에 수록되지는 않았다.<sup>15)</sup>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譯科榜目』. [검색일자 2016. 6. 8] <<http://people.aks.ac.kr/>>.

14) 金弘集이 쓴 『夢觀詩稿』重刊序에 이러한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李廷柱, 『夢觀詩稿』『夢觀詩稿重刊序』. “... 近讀夢觀詩稿, 淸警有雅韻, 始知藕船爲夢觀從父昆弟之子, 而詩家源流有不可誣也. ...”

15) 趙秀三, 『秋齋集』卷8 『李伯相廷稷天籟詩序』. 그러나 『天籟詩稿』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이상적의 국내외 교유관계는 스승인 김정희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외의 교유관계는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다양했다. 금석문(金石文)과 고동서화(古董書畫)에 관심이 깊었던 권돈인(權敦仁, 1783-1859), 조두순(趙斗淳, 1796-1870)과도 왕래가 있었다. 또한 연행(燕行)을 통하여 맺은 인연들도 있었다. 1836년(헌종 2) 함께 동지사행(冬至使行)을 떠난 신재식(申在植, 1770-1843)과는 시를 지어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연경(燕京)에 들어간 뒤에는 그 시들을 모아 『상간편(相看編)』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서화(書畫)에도 조예가 깊었던 이상적은 당대 서화수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남공철(南公轍, 1760-1840)<sup>16)</sup>과도 일찍부터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은 처음으로 연행을 가기 1년전인 1828년(순조 28)에 남공철에게 「題亦畫舫齋奉應南穎翁相國」<sup>17)</sup>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1832년(순조 32)에도 「奉賀南相國穎翁回僑」이라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sup>18)</sup>

김석준의 자는 희보(姬保)이며, 호는 소당(小堂), 효리재(孝里齋), 연백당(研白堂)이다. 김석준의 본관은 선산(善山)으로 증조부인 김덕순(金德淳, 1741-?), 아버지인 김계운(金繼運, ?-?)은 왜어(倭語) 역관이었으며 방목(榜目)에서 입격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조부인 김태경(金泰敬, ?-?)은 사역원 판관을 지냈다. 숙부(叔父)인 김이경(金履敬, 1784-?)과 김시경(金蓍敬, 1787-?) 역시 각각 한어(漢語)와 왜어 역관이었다. 고조부인 김천수(金天秀, ?-?)는 사자관(寫字官)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외손자는 의관으로 글씨를 잘 쓴다고 알려진 현재덕(玄在德, 1771-?)이다.<sup>19)</sup>

16) 南公轍은 자신의 문집에 書畫 감상집인 「書畫跋尾」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모두 116편에 달하는 분량이다.

17) 李尙迪, 『恩誦堂集』 卷1 「題亦畫舫齋奉應南穎翁相國」.

18) 이 외에 더욱 자세한 교유 관계에 대해서는 이준희, “藕船 李尙迪과 晩淸 文人의 文學交流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38-56. 참조

1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譯科榜目』. [검색일자 2016. 6. 8]  
<<http://people.aks.ac.kr/>>.

김석준은 이상적의 제자로, 그가 쓴 『우선정화록』의 발문에 따르면 약관(弱冠) 무렵부터 이상적의 문하에서 배웠다고 하였다.<sup>20)</sup> 김석준과 함께 이상적의 제자로 알려진 인물들로는 『해객시초』의 공동 저자들인 이용숙, 강해수, 김병선, 변원규, 최성학이 있다. 이상적 이외에 김석준이 스승으로 여긴 이가 현기(玄錡, 1809-1860)인데, 김석준은 현기가 죽은 후에 『희암시략(希庵詩略)』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도 하였다.

김석준의 교유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가 지은 회인시에서도 그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권돈인, 조두순, 윤정현(尹定鉉, 1793-1874), 김정희의 순으로 나열된 그의 『홍약루회인시록』을 들여다보면 스승인 이상적과 교유 인물이 상당수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이는 국내외의 교유인물 모두에게 포함된다. 끝에 이상적의 아들인 이용림(李用霖, 1839-?)에 대한 회인시도 포함되어 있다.

## 2.2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유

조선의 문인들이 청나라 문인들과 교유할 때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오갔다. 특히 서화와 서적이 가장 대표적인 품목들이었다. 청나라 문인들은 조선의 문인들과 교유할 때 조선 문인들의 글을 보고 싶어 했다.<sup>22)</sup> 이러한 사실들이 조선 문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종종 자신의 문집을 자신이 죽기 이전에 스스로 간행하여 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조선 문인들이 자신의 글들을 모아 스스로 편집한 원고(原稿)를 모아 책으로 엮어서 보여주기도 하였다.

20) 李尙迪, 『藕船精華錄』 「金奩準跋文」.

“奩自弱冠, 受學於門下, 於今二十年矣. …”

21) 懷人詩에 수록된 인물의 자세한 명단은 박중훈(2012. 11), 243-249에서 살펴볼 수 있다.

22) 그 한 사례로 金正中, 『奇遊錄』 壬子年 正月 二十六日 기록에 청나라 문인들과 전별하는 때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劉錫瓚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글을 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朝飯後, 程少伯胡錦堂與劉錫瓚字瑟堂者, 來訪館所, 其意爲錢我也. 劉則素是無雅之人, 委訪求書, 尤感. 其人時爲通州知縣, 可謂東道主人也. 松園揮酒數紙, 以塞其請. 與之匝坐, 話別良久. 余以苔紙十幅南靈二封, 謝其往錢之意, 一夕間. 장수옥이지례사일용정韻二紙, 畫幽居於扇面以贖之, 其意良感. …”

대표적인 인물로는 남공철이 있다. 남공철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자신의 저작물들을 엮어 청나라 문인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문집인 『금릉집(金陵集)』의 서문을 청나라 문인 曹江(淸, ?-?), 李林松(淸, 1770-1827), 陳希祖(淸, 1767-1820)로부터 받아 이를 자신이 죽기 전에 스스로 편집하여 간행하였다. 『금릉집』 외에도 자신의 문집인 『영옹속고(穎翁續藁)』, 『영옹재속고(穎翁再續藁)』, 『귀은당집(歸恩堂集)』을 모두 손수 간행하였다.<sup>23)</sup>

이상적의 청나라 인사들과의 교유 관계는 이상적이 지은 회인시와 『해린척소』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sup>24)</sup> 주로 翁方綱(淸, 1733-1818)의 학맥을 이은 문인들과 교유를 맺었다. 『상간편』의 간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黃爵滋(淸, 1793-1853) 역시 翁方綱의 학파였다. 『해린척소』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이름 중 하나는 張曜孫(淸, 1808-1863)이다. 張曜孫은 『세한도』를 관람하는 자리를 주선한 사람이다. 吳贊(淸, 1785-1849)과 孔憲彝(淸, 1808-1863)는 이상적의 문집 간행을 청나라에서 돕기도 한 사람들이다. 王鴻(淸, 1807-1876)이 보낸 척독 역시 『해린척소』에 많이 실려있는데, 주로 시문과 문집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청나라의 교유 인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교유를 맺었던 인물은 董文煥(淸, 1833-1877)이었다. 2007년에 劉婧의 연구는<sup>25)</sup> 현재 남아있는 董文煥의 일기인 『研樵山房日記』를 대상으로하여 조선 시문집의 유입을 연구하였다. 董文煥의 일기인 『연초산방일기』에는 김석준을 비롯하여 이용숙, 변원규 등 이상적의 제자들과 교유하고 조선 문인들의 시문집을 건네받은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sup>26)</sup> 이들이 주고받은 시문집 중에는 스승인 이상적의 문집뿐만이 아니라 이색

23) 이윤나, “19세기 南公轍의 著述 및 書籍 刊行 活動,”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3).

24) 懷人詩에 수록된 인물의 자세한 명단은 박중훈(2011. 2), 282-286에서, 『海隣尺素』에 수록된 인물의 자세한 명단은 정후수, “『해린척소(海隣尺素)』 발신자 61인의 이력(履歷),” 『한성어문학』 28권(2009), 454-4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 劉婧, “通過董文煥日記攷朝鮮詩文集流入 中國及朝鮮譯官的作用,” 『동아인문학』 제12집(2007), 255-276.

26) 董文煥의 『研樵山房日記』는 연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董文煥, 董壽平等, 『淸季洪洞董氏日記六種』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에 영인되어 있다.

(李穡, 1328-1396), 정몽주(鄭夢周, 1337-1392),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문집, 이언진의 『송목관집』, 이정직의 『천퇴시고』,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이십일도회고시(二十一都懷古詩)』 등이 포함되어 있다. 董文煥는 훗날 이들의 시선집인 『해객시초』에 평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들 뿐만이 아니라 사행에 온 조선 문인들도 董文煥을 찾아오면서 선조들이나 자신의 문집 원고를 들고 오기도 하였다.<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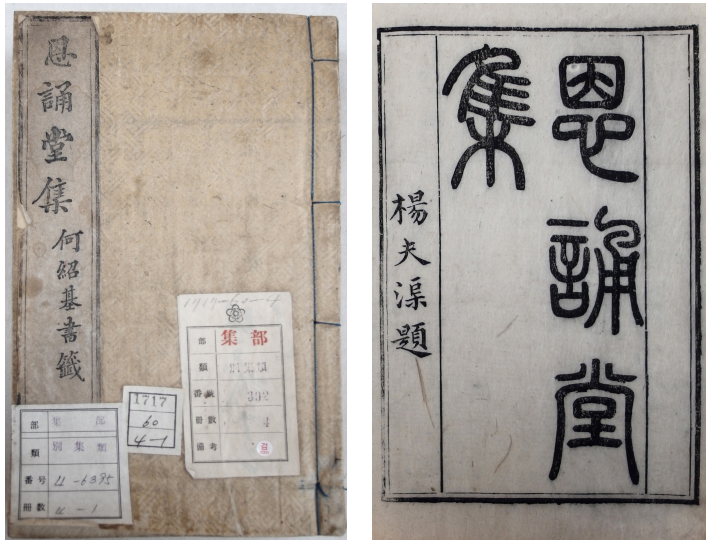
이상적과 김석준 국내외의 여러 문인들과 활발한 교유 관계를 맺었으며, 때로는 이들의 소식을 서로 전해주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서로의 교유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19세기 조선 문인들과 청나라 문인들의 교유 관계에 있어서 가교(架橋)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다.

### 3. 이상적의 서적 간행 활동

#### 3.1 『은송당집(恩誦堂集)』

『은송당집』은 이상적 자신의 시문집이다. 스스로 시문집의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은송당집』의 완질은 원집과 속집을 합하여 모두 24卷4冊으로 알려져 있다. 1책은 시집(詩集) 10권, 2책은 문집(文集) 2권과 속편(續篇) 문집 2권, 3책은 속편 시집 1권-5권, 4책은 속편 시집5권-10권으로 이루어져있다. 四周雙邊半郭 163 × 11.2cm, 有界, 9行 21字 註雙行, 黑口, 上下向黑魚尾; 26.1 × 14.5~15.3cm의 판식을 가지고 있는 목판본이다. 24권 4책 완질본은 국립중앙도서관(위창古 3648-62-30)과 서울대학교 규장각(奎 7713), 고려대학교(대학원D1-A1316-1-4) 소장본 등이 있다.

27) 『研樵山房日記』에 따르면 鄭顯德(1810-1883)은 1864년(高宗 1, 同治 3)에, 趙性教(1818-1876)은 1868년(高宗 5, 同治 7)에 각각 자신의 詩草를 동문환에게 직접 전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4-6395)

<그림 1> 『은송당집』의 표지와 편제면(編題面)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은송당집』은 23권 4책이다. 완질본과 같이 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 속집 10권이 없다. 10권이 결락된 것인지 문집을 차례로 증보하는 과정에서 10권이 없이 유통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一蓂 문고본<sup>28)</sup>과 想白 문고본<sup>29)</sup>은 모두 24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문집의 작품 수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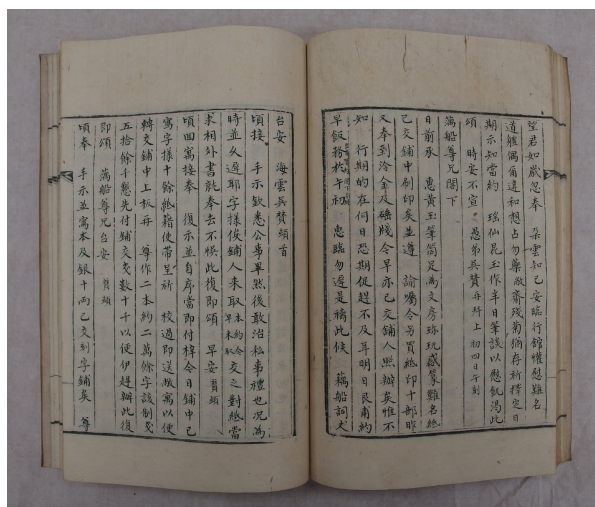
『은송당집』의 간행과정은 이상적이 청나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척독을 모아놓은 『해린척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15종의 전사본이 존재한다.<sup>30)</sup>

28) 서울대 규장각(一蓂 古 819.55-Y63s)

29) 서울대 규장각(想白 古 895.116-Y63e)

30) 정후수(2009), 450-452. 그 중 하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인 『蘭言彙抄』(K4-6756)이다.

『은송당집』의 간행과 관련된 『해린척소』의 척독은 1848년(헌종 14)과 1859년(철종 10)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상적이 제 8차와 제 10차 연행을 갔던 시기이다. 1848년의 문집 간행에서 이상적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이는 吳贊이었다. 이상적은 吳贊에게서 문집의 간행에 관한 6편의 척독을 받았다. 또 1859년에는 孔憲彝에게서 문집의 간행에 관한 6편의 척독을 받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4-6756)

<그림 2> 吳贊으로부터 받은 척독의 일부

吳贊과 孔憲彝로부터 받은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은송당집』의 서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자가 큰 것은 대개 2分 7毫이다.
- ② 초상화를 보내니 바로잡아 달라.
- ③ 冷金紙와 硃牋은 받았다.
- ④ 친히 行書나 草書, 楷書로自를 직접 써서 보내 달라.
- ⑤ 套匣을 만들 것인지 알려주셔야 장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장서각 소장 『은송당집』과 비교해 보면 글자 크기인 2分 7毫는 0.69cm로 장서각본 『은송당집』의 실측 글자 크기인 약 0.6~0.7cm와 거의 일치한다. 초상화에 대한 부분 역시 일치한다. 자서(自序)의 바로 뒤에 이상적의 아들 이용림이 그린 초상화가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자서의 필체 역시 오찬의 주문에 따라 이상적이 자필 행서로 써 보낸 것으로 보인다.

종이에 대한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다. 냉금지는 주로 서화작품에 사용되던 종이로 ‘금박이 박힌 종이’이다. 추전은 어떠한 종이인지 알 수 없다. 장서각과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은송당집』의 종이는 청나라에서 생산된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투갑(套匣)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한 소장 기관의 주기 사항에 투갑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목록은 없다. 다만 장서각본과 규장각본(奎 7713)에서는 책등의 양끝 모서리를 연두색 비단으로 감싼 과두(裹頭, 혹은 包角)를 확인할 수 있다.

### 3.2 『천뢰시교(天籟詩稿)』

『천뢰시교』는 이상적의 아버지인 이정직의 시집이다. 이정직 역시 역관이었다. 4卷1冊으로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7.1~17.4 × 10.4cm, 有界, 9行 21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向黑魚尾; 23.0~26.0 × 14.4~15.1cm의 판식을 가지고 있으며 목판본이다. 편제면(編題面)<sup>31)</sup>이 있으며 바로 다음 장에 『咸豐八年十月戊州馮志沂署』의 간기(刊記)가 있다. 간기에 보이는 咸豐八年은 1858년(철종 9)으로 『은송당집』의 속집이 간행되기 1년 전이다. 이 해에 이상적은 또다시 사행길에 올라 10월 26일에 출발해서 다음해 3월 20일에야 돌아왔다.

『천뢰시교』의 간기가 10월인 것으로 보아 조선에 있을 때 원고를 보내 청나라 문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간행을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청나라에

31) 編題面은 ‘標題’가 있는 面을 말한다. ‘標題面’ 또는 ‘標題紙’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封面葉’ 또는 ‘內封面’이라고 한다. 編題面의 명칭에 대해서는 조계영,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幀,”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12), 90~91에 자세하다.

교유 인물들이 많았던 이상적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은송당집』의 속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교정은 이상적과 형인 이상건(李尙建, ?-?)이 맡았으며, 권말에 있는 지(識)는 이상적이 썼다. 여기에 『천뢰시고』의 간행 이유가 나온다. 어머니가 울면서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와 아버지의 유고(遺稿)라 하며 건네주었고, 이후 이상적이 산일된 원고를 모으고 깨끗하게 베껴 가지고 있다가 간행하였다고 한다.<sup>32)</sup> 간기를 쓴 馮志沂(淸, 1814-1867)는 『해린척소』에서도 그 교유가 확인되는데, 『천뢰시고』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영남대 도서관(古도811.9-이정직)과 전남대 도서관(4A2-천236○), 그리고 하버드 연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연청도서관본은 목록에 중국본으로 표기되어 있다.

### 3.3 『몽관시고(夢觀詩稿)』

『몽관시고』는 이정주의 시집이다. 1859년(철종 10)에 이정주의 아들 이상익(李尙益, 1801-?)이 간행한 목활자본과 1891년(고종 28)에 손자인 이용준(李用俊, 1836-?)이 간행한 전사자본이 있다. 전사자본에는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의 중간서와 시 2수가 추가되었다.

이상적과 관련이 있는 판본은 아들 이상익이 간행한 목활자본이다. 이 책에는 흔히 장혼자(張混字)라고 알려진 이명예자(李命藝字)가 사용되었다.<sup>33)</sup>

32) 李廷稷, 『天籟詩稿』 『李尙迪識』.

“... 先祖妣洪貞夫人, 出一篋書, 泣而論尙迪曰, 此爾父遺稿也. 爾父之精魄在焉. 手澤存焉. 爾能恪守, 勿墜以圖久遠也耶. 因取來紙屬, 草易致散失者, 悉焚之授尙迪, 而善寫成卷者, 若干編曰, 斯亦可以傳矣. ...”

33) 張混字의 명칭에 대한 검토는 박철상, “조선후기 목활자 ‘張混字’ 명칭의 재검토,” 『서지학보』 제31호(2007. 12), 37-57에 자세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D3B 1243)

<그림 3> 『몽관시고(夢觀詩稿)』의 권수제와 발문

이 목활자본 『몽관시고』의 끝에 아들 이상익의 발문이 있는데 여기에 『몽관시고』의 간행 과정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상적이 이 문집의 교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 아버지의 작품을 뽑아 편집하고 從祖弟 尙迪에게 교정을 부탁하여 다시 350수를 얻었다.<sup>34)</sup>

이 책은 3卷1冊으로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9.0 × 12.0cm, 9行 21字, 上下向黑魚尾; 28.5 × 17.5cm의 판식을 갖고 있다. 현재 주요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45-가86, 일산古3644-73), 한국학중앙연구원(D3B-1243), 서울대 규

34) 李廷柱, 『몽관시고(夢觀詩稿)』 『李尙益夢觀詩稿跋』.

“... 今茲採出而輯之, 屬從祖弟尙迪, 又爲之商訂釐, 得三百五十首. ...”

장각(7033) 등이 있다.

이상적은 종숙인 이정주에게 시를 배운 것으로 전해진다.<sup>35)</sup> 이정주는 이상적에게 혈연관계로 얹힌 친족이기도 하였으며 스승이기도 하였다.

### 3.4 『송목관집(松穆館集)』

『송목관집』은 이상적의 제자 김석준의 주도로 청나라에서 간행되었다. 이상적은 이 책의 교정을 하였으며, 책에 수록된 『李虞裳先生傳』과 발문을 쓰기도 하였다. 『송목관집』의 자세한 서지사항과 간행 과정은 김석준의 서적 간행 활동에서 살펴볼 것이다.

### 3.5 『상간편(相看編)』

『상간편』은 헌종 2년(1836) 동지사행 정사 신재식 등 8인의 공동 시선집이다. 이상적은 상방(上房) 건량관(乾糧官)으로 사행에 함께 하였으며, 『상간편』 본문의 앞에 있는 참여인물 명단의 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상간편』의 출판에는 청나라 관인이었던 黃爵滋가 깊이 관여하였으며 이 책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1冊으로 四周雙邊 半郭 16.5~17.1 × 11.5cm, 有界, 10行 21字, 上下向黑魚尾; 22.8 × 15.4cm의 판식을 가지고 있는 목판본이다. 주요 소장처는 서울대 규장각(想白古 895.116-Sa58), 건국대 도서관(811.1 이51人), 일본 천리대학(9291-409),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241.49.4022)이 있다.

이상적은 편제면에 제목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에서는 이상적이 썼다고 알려진 편제면은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규장각본은 조선에서 다시 장황한 것으로 보이는데, 능화문이 있는 표지에 사침안(四針眼)으로 장정하였다. 종이는 청나라의 백면지(白綿紙)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5) 李廷柱, 『몽관시고(夢觀詩稿)』 『李閔益夢觀詩稿序』.

“天籟先生之令嗣藕船, 有詩文集刊行天下, 亦嘗淬礪於先生者也.”

## 4. 김석준의 서적 간행 활동

### 4.1 『송목관집(松穆館集)』

『송목관집』은 이언진의 문집으로 이상적의 제자인 김석준이 1860년(철종 11)에 청나라에서 간행하였다. 2卷1冊으로 四周雙邊 16.7~17.5 × 11.1cm, 9行 21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3.8 × 16.8cm의 판식을 가지고 있다. 편제면이 있으며, 뒷장에는 「咸豐十年十月善州金奭準署」라고 새겨져 있다. 권말에는 「金奭準校輯」, 「紅藥樓藏板」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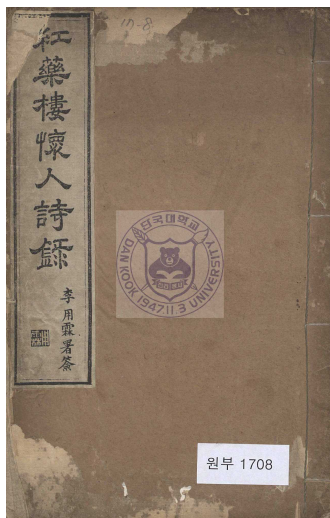
현재 주요 소장처로는 서울대 규장각(一簣古 819.54-Y54s), 고려대(육당D1-A181)가 있다. 이언진의 문집은 같은 해에 조선에서도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규장각에 있는 『송목관집』은 오침안(五針眼)으로 장정하였으며, 표지는 두께가 얇은 중국식 장황을 하였다. 표지를 개장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본문의 종이는 청나라의 백면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행연도가 이상적이 제 10차 사행을 다녀온 직후이고, 『송목관집』의 간행에 있어서 이상적이 김석준과 더불어 적극적인 간행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이상적의 『은송당집』 간행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4.2 『홍약루회인시록(紅藥樓懷人詩錄)』

『홍약루회인시록』은 김석준 본인의 시집으로 회인시의 형식으로 쓴 것이다. 조선의 인사들을 비롯하여, 청나라와 일본 문인들도 이 회인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卷1冊으로 四周單邊 半郭 19.8 × 12.5cm, 有界, 9行 19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26.3 × 16.5cm의 판식을 가지고 있다. 1869년(고종 6)에 畵史字로 간행되었다. 현재 주요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위창古3648-10-27), 한중연(K4-6695), 단국대(연민, 고 851.905 김746ㅎ)이다.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  
(연민, 고 851.905 김746ㅎ)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4-6695)

<그림 4> 『홍약루회인시록(紅藥樓懷人詩錄)』의 표지

단국대 소장본의 경우 사침안(四針眼)으로 장정되어 있으나 한중연 소장본의 경우에는 오침안(五針眼)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낱장의 붉게 물들인 표지를 사용하였다. 표지 제첨은 이상적의 아들인 이용림이 썼으며, 편제면의 제(題)는 정학교(丁鶴喬, 1832-1914)가 썼다. 서문은 최성학이 썼으며, 바로 뒤의 지(識)는 김석준 본인이 썼다. 김석준은 이 글에서 『홍약루회인시록』의 간행에 대하여 동인(同人)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36)</sup>

36) 金奭準, 『紅藥樓懷人詩錄』 「金奭準識」.

“... 同人亟請付梓, 其誼殊可感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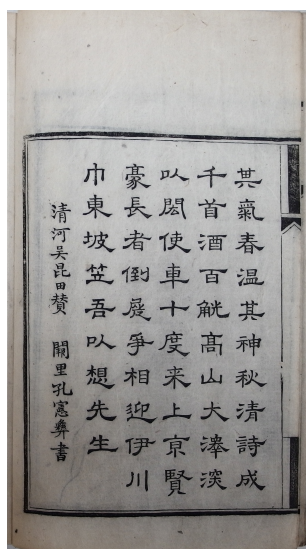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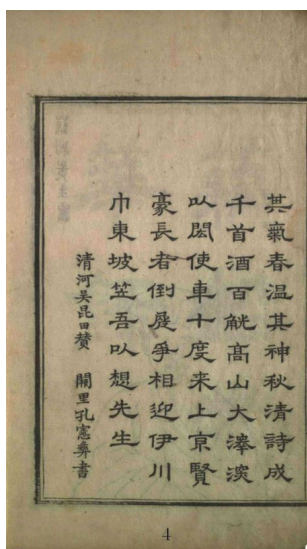
#### 4.3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

『藕船精華錄』은 스승인 이상적이 세상을 떠난 후에 김석준이 편찬한 이상적의 문집이다. 김석준은 『은송당집』 24卷을 저본으로 작품을 뽑고 편집하여 1869년(고종 6)에 3卷1冊으로 간행하였다.

四周單邊, 半郭 19.9 × 12.5cm. 9行 19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6.3 × 16.4cm의 판식을 가지고 있다. 『우선정화록』의 간행에는 전사자가 사용되었다. 현재 주요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4-66, 한古朝45-가450)과 서울대 규장각(가람古 819.56-G425u)이다.

편제면이 있으며, 『은송당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초상화와 공현이의 서(書)가 그대로 옮겨져 있다. 글자의 크기와 판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은송당집』을 복각하지 않고 모방하여 새로 새긴 것으로 보인다. 『우선정화록』의 서(書)는 역시 이상적의 제자이자 김석준의 지기(知己) 였던 최성학이 썼다. 권말에는 「文人金奭準編輯」, 「崔性學校訂」, 「男用霖恭悅」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들이 『우선정화록』의 간행에 참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문은 김석준과 이용숙이 썼다. 김석준은 발문에서 이상적의 가르침을 받들어 『어양집(漁洋集)』의 체제를 본받아 따랐다고 하였다. 『어양집』은 청나라 문인인 王士禎(淸, 1634-1711)의 시선집인 『어양산인정화록(漁洋山人精華錄)』을 뜻한다. 『어양산인정화록』은 당시의 조선 문인들이 즐겨 읽던 시집이었다. 이는 김정희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일본 동양문고에는 『정화선존(精華選存)』이라는 이름으로 추사가 『어양산인정화록』에 실린 칠언시를 초록한 필사본이 남아있다. 이상적과 김석준 역시 『어양산인정화록』을 즐겨 읽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45-가45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4-6395)

<그림 5> 『우선정화록(藕船精華錄)』(左)과 『은송당집(恩誦堂集)』(右)의 비교

#### 4.4 『희암시략(希庵詩略)』

『희암시략』은 현기의 시집으로 1869년(고종 6)에 김석준이 간행하였다. 김석준은 자신이 직접 쓴 서(敍)에서 현기에게서 시를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sup>37)</sup> 최성학이 쓴 『玄希庵先生傳』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김석준이 책을 간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8)</sup> 편제면 역시 김석준이 쓴 것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오른쪽에 『希庵詩略』, 가운데에 『金奩準題』, 가장 왼쪽에 『同治己巳春紅藥樓活印』이라는 刊記가 있다.

홍약루(紅藥樓)는 『송목관집』의 권말 간기에도 나타나는데, 목판본인 『송목관집』에서는 ‘장판(藏板)’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금속활자본인 『희암시략』은 ‘활판(活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청나라에서 간행한 『송목관집』과 조선에서 간행한 『희암시략』에서 똑같이 간기에 ‘홍약루’가 나타나는데, ‘홍약루’가 실질적으로 간행이 이루어진 곳이라기보다는 현대적 의미의 발행소로 보인다. 즉, ‘홍약루’는 김석준이 간행한 책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다.

『희암시략』은 1冊으로 四周單邊, 半廓 19.8 × 12.3cm. 9行 10字, 上下向黑魚尾; 27.6 × 17.6cm의 판식을 가지고 있다. 간행에는 전사자가 사용되었다. 현재 주요 소장처는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3644-65, 위창古3648-92-1)과 고려대(신암 D1 A1325)이다.

#### 4.5 『홍약루시초집(紅藥樓詩初集)』

『홍약루시초집』은 김석준이 자신이 보고 들은 일본의 역사와 풍물을 오언율시(五言律詩) 22수로 읊은 시집이다. 1冊으로 四周單邊 半郭 17.2 × 9.8cm, 有界, 8行 17字, 上下向黑魚尾; 24.7 × 14.0cm의 판식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1865년

37) 玄錡, 『希庵詩略』 「金奩準敍」.

“余弱冠, 家大人嘗余曰, 人而不學, 猶正牆面而立, 必得賢師而教之. 歲丙午始邀先生. …”

38) 玄錡, 『希庵詩略』 「玄希庵先生傳」.

“… 君奩準, 曾受業于先生, 聞詩則記之. 哀成一卷, 將劖劖以壽. …”

(고종 2)에 청나라에서 연환자로 인쇄했다고 알려져 있다. 전사자로 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 목록도 있으나 판본 확인해 보니 전사자가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표지 제첨에 『화국죽지사(和國竹枝詞)』로 되어 있어 서명이 『화국죽지사』로 기재되어 있는 곳도 있다. 현재 주요 소장처로는 국립중앙도서관(古3644-258), 고려대(육당D1-A342), 충남대(集.詩文評類-255)가 있다.

시집의 서(敍)는 김석준과 같은 역관인 이용숙의 부탁으로 청나라 문인 董文渙이 썼다. 董文渙의 서 앞에는 「同治四年乙丑仲冬宜山南秉吉暑」라고 쓰여진 남병길(南秉吉, 1820-1869)의 서(暑)가 있다. 권말에는 조두순(趙斗淳, 1796-1870), 윤정현, 남병길, 金尙鉉(1811-1890) 등의 발문과 김석준 본인이 쓴 지(識)가 있다. 김석준이 쓴 지에는 스승인 이상적이 평(評)하였으며, 남병길이 시를 보고 난 후 그것을 칭찬하고 아울러 간행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9)</sup> 이로 보아 남병길은 『홍약루시초집』의 간행에 전반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자인 김석준이 이 책의 간행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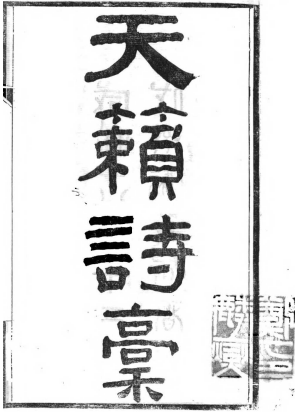
## 5. 이상적과 김석준이 간행한 서적의 특징과 간행 배경

첫째, 이상적과 김석준이 간행한 서적은 모두 본인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문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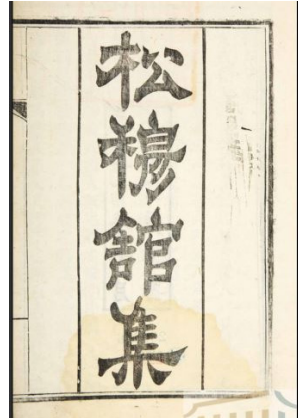
『은송당집』과 『홍약루회인시록』, 『홍약루시초집』은 본인의 시문집이었으며, 『상간편』은 이상적 본인만의 시문집은 아니었으나 본인이 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시문집이었다. 『천뢰시고』와 『몽관시고』는 혈연관계로 엮힌 서적 간행활동이었으며, 『우선정화록』과 『회암시략』은 사제관계로 엮힌 서적 간행활동이었다. 이언진이 당시 역관들에게 존중받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직접 배운 것은 아니나 『송목관집』 역시 사제관계로 인한 서적 간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9) 金奭準, 『紅藥樓詩初集』 「金奭準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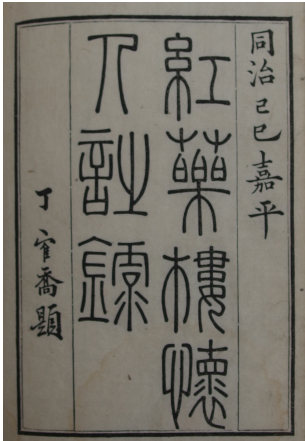
“... 乙丑仲冬, 南尙書留齋假, 觀詩而獎之, 兼以付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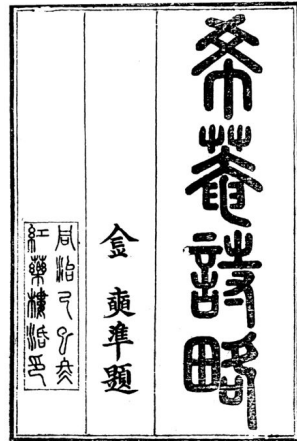
하버드 엔칭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一簣古 819.54-Y54s)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4-6695)



국립중앙도서관 (일산古3644-65)

<그림 6> 이상적과 김석준이 간행에 참여 서적 편제면

둘째, 문집을 청나라에서 간행하였다.

『은송당집』, 『천뢰시고』, 『송목관집』, 『홍약루시초집』, 『상간편』의 경우 모두 청나라에서 간행되었으며 종이 역시 청나라의 백면지, 혹은 당지(唐紙)를 사용하여 간행하였다.

셋째, 국내에서 간행한 경우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몽관시고』는 이명예자로 간행되었으며 『홍약루회인시록』, 『우선정화록』, 『희암시략』은 모두 전사자로 간행하였다. 이명예자와 전사자는 모두 조선 후기에 만들어져 사용되었던 활자로 정리자(整理字)와 같은 계열인 인서체 활자이다. 이 인서체 활자들은 중국 목판본의 자형(字形)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였다.

넷째, ‘편제면’이 사용되었다.

『은송당집』, 『천뢰시고』, 『송목관집』, 『상간편』, 『홍약루회인시록』, 『우선정화록』, 『희암시략』에는 모두 편제면이 있다. 조계영은 2006년의 연구에서 편제면이 정조가 인쇄문화에서 중국의 유행을 수용하였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0)</sup>

다섯째, 대부분 1冊으로 간행되었다.

『은송당집』을 제외한 문집은 모두 1책으로 간행되었으며, 1책으로 간행된 책 중에서도 『몽관시고』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은 분량의 책이 아니어서 매우 얇았다. 물론 청나라의 종이가 조선의 종이에 비해 더 얇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반 계층 문인들의 문집에 비해 장수가 많지 않다.

이상적과 김석준의 서적 간행 활동은 이전까지 중인 계층의 서적 간행의 양상보다 더욱 적극성을 띄는 행보였다. 자신들의 시문집을 주도적으로 간행하였으며, 그 서적 간행 활동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청나라에서 더욱 활발히 간행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이러한 서적 간행 활동을 하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배경적 요인으로 청나라에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청나라 문인들과 교유함에 있어서 필수요소 중 하나였던 문집의 교환이 이상적과 김석준으로 하여금 살아생전에 스스로 문집을 간행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나라 인사들과 폭넓은 교유를 위해서는 조선보다 청나라에서 바로 문집을 간행하는 것이 문집의 운반비용을 덜어주기도 하였을 것이고, 청나라에서 간행하여 청나라 문인들에게 바로 전해줄 수 있다는 이점

40) 조계영(2006, 12), 91.

이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서적 간행에 있어서는 주변의 교유 인물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편집 및 교정에서부터 문집의 제(題), 서발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다.

19세기는 이전 시기와 달리 중인 계층이 더욱 활발하게 서적 간행에 참여하였던 시기였다. 그 중심에는 역관이었던 이상적과 김석준이 있었지만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인물들이 서적 간행에 활발히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金奭準. 『紅藥樓懷人詩錄』.

金奭準. 『紅藥樓詩初集』.

金正中. 『奇遊錄』.

李尙迪. 『恩誦堂集』 卷1.

李尙迪. 『藕船精華錄』.

李廷柱. 『夢觀詩稿』.

李廷稷. 『天籟詩稿』.

趙秀三. 『秋齋集』 卷8.

玄錡. 『希庵詩略』.

### 2. 논문 및 저서

董文煥, 董壽平等. 『清季洪洞董氏日記六種』.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7.

이준희. “藕船 李尙迪과 晚淸 文人の 文學交流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이윤나. “19세기 南公轍의 著述 및 書籍 刊行 活動.”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

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3.

강순애. “우상 이언진의 비점본 『해람편』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7권 제1호(2007. 6).

김동건. “조선 후기 懷人詩의 인물 형상화 방식: 金奭準의 회인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6권 1호 통권130호(2013). 7-33.

박중훈. “19세기 朝淸 문인들의 교유 양상: 藕船 李尙迪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제32집(2011. 2). 279-304.

박중훈. “19세기 조선 중인들의 국내외적 활동 양상: 小棠 金奭準의 懷人詩를 중심으로.” 『동방학』 제25집(2012. 11). 239-268.

박철상. “조선후기 목활자 ‘張混字’ 명칭의 재검토.” 『서지학보』 제31호(2007. 12). 37-57.

서한식. “金奭準과 『孝里齋逸集』에 대하여.” 『한문학보』 제21집(2009. 12). 473-497.

劉婧. “通過董文煥日記攷朝鮮詩文集流入 中國及朝鮮譯官的作用.” 『동아인문학』 제12집(2007). 255-276.

윤병태. “平民 張混의 編纂書와 刊行書.”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12).

이춘희. “19세기 燕行文人の 文學交流 양상 및 의미 - 藕船 李尙迪을 中心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45집(2005. 8). 136-163.

이춘희. “19세기 朝鮮文人과 淸 常州派 후계문인의 交游: 藕船 李尙迪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제45집(2009). 51-74.

이춘희. “淸 王鴻이 李尙迪에게 보낸 尺牘으로 본 선비적 交游.” 『한국학논집』 제50집(2013. 3). 7-35

이춘희. “조선 중·후기 漢文學과 淸.淸代문학의 대가들: 道咸연간의 대가 祁寯藻와 조선 문인 李尙迪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7권(2015).

정후수. “譯官의 문학활동 - 조선조 후기를 중심으로 -.” 『한성어문학』 3권(1984).

정후수. “『海隣尺素』 13種 轉寫本 對照.” 『동양고전연구』 제20집(2004. 6). 81-114.

정후수. “『恩誦堂集』 출판 경위 - 『海隣尺素』記事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

제25집(2006). 293-312.

정후수. “北京 刊『恩誦堂續集』출판 경위:『海隣尺素』記事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28권(2007. 6). 283-315.

정후수. “『해린척소(海隣尺素)』 발신자 61인의 이력(履歷).” 『한성어문학』 28권  
(2009).

조계영. “朝鮮後期 『宮園儀』의 刊印과 粧幀.” 『서지학연구』 제35집(2006. 12). 90-91.

### 3. 웹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譯科榜目』.

